

2018년 12월 31일 “복음의 여정(13 -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시 84:3-9; 벧후 3:18)

<도입>

2018 표어 말씀: 시 84: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육체적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담는 영적 존재로서 삶의 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퇴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활력을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의 힘으로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길을 사는 것은 생각과 소원으로만 되지 않고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마 21:28~** 아버지의 명에 맡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았고, 동생은 ‘싫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뜻을 행한 자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할 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의 새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바닥에 처한 둘째 아들). 이것이 힘을 얻는 시작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경외)하는 삶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1] 눈물의 골짜기**

괴테의 소설(‘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6 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올해도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상실, 좌절/실패, 질병 등과 같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꼭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타인과 공감/교류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선 고난을 제거하시기 보다 고난 속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없애시는 것보다 더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난과 십자가를 받음으로 고난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하면 6 절, “...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웁니다. 이 샘들은 골짜기 안에 예비 되어 있습니다.

**[2] 샘을 예비하신 하나님**

골짜기에서 생명수 주는 샘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세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 (1) **예수님 알기.**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어떤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시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체(교회) 알기.** 공동체를 개인들의 군집으로만 보면 별 배움이 없습니다. 개미를 보면, 개미 한 마리의 속성과 개미 군집의 속성은 크게 다른 차원입니다. 공동체 자체의 생명의 운행으로 빛어지는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몸으로서 개인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 (3) **나를 알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명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잘 못 대하는 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찮은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쓸모 없는 사람 같고... 이런 자기 평가는 성경적인 자기 이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졌고, 이것이 그분 사랑과 기쁨 속에서 자라날 때 주님의 사랑받는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알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찰하는 기본적 훈련을 통해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샘을 통해 힘을 얻으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3] 하나님을 경외함(사랑함)**

하나님 사랑하는데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 말씀을 배우는 성경적 궤도 위에 살게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집니다. 그분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늘 다가가면 위로와 평강의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확신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동을 맛보게 합니다. 나의 내면 속에서 주님과 동행 때문에 얻는 감동은 자신을 기쁘고 힘있게 하는 동시에 겸손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자기 고집 안 부리며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주변을 위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자 하나를 위하는 행위는 주님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맺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일수록 나, 남, 또는 환경을 탓하거나 투사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사랑하며 살아 내신 성도님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어떤 일이든 **주님을 경외하기(사랑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축복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올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내며 애쓰셨습니다. 한가지 씩만 나의 눈물 골짜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2.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생명수의 샘을 발견하는 길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어떤 샘이 열렸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을 사랑(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의탁하며 결단합니까?